

부산 센텀시티, AI관제·안전기술 실증 거점으로 조성

국토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선정
2028년까지 총 168억 투입
센텀 일대 120만㎡ 기반 조성
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연계
GPU·바우처 등 지원체계 마련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센텀시티를 인공지능 기반 도시기술 실증 무대로 조성한다. 센텀시티에 집적된 디지털 산업과 마이스 기능을 활용해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생태계 구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스마트 인프라와 기업 지원 기능을 도시 공간에 결합해 민간기업이 실제 생활환경에서 기술을 시험하고 상용화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전국에서는 부산을 포함한 2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사업 대상지는 센텀시티 일원 120만

2100㎡ 규모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국비 80억원과 시비 80억원, 민간 투자 8억원 등 총 168억원을 투입한다. 특화단지 비전은 'AI 전환(AI) 시대를 선도하고 준비된 센텀(AI Era, AI-Ready: Centum)'으로 설정했다.

핵심 분야는 지능형 관제와 안전이다. 센텀시티는 디지털 산업 기반과 함께 마이스 산업, 문화·상업·관광 기능이 밀집한 부산의 대표 복합도심이다. 이에 따라 AI 기반 도시 운영기술의 개발부터 실증, 성능 검증과 제품화까지 수행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았다.

사업은 부산시가 총괄한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사업 관리와 AI산업혁신지원센터 운영을 담당한다. 여기에 디토닉과 스마트플래닝, 동림티엔에스, 비에스엔시스템, 쉬모스랩 등 민간기업이 참여해 시범계획 수립과 실증 인프라 구축, AI 플랫폼 개발, 데이터 모델링, 리

빙랩 운영 등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AI 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실증 인프라 고도화와 함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우수 기업 유치에 나선다. 또한 검증을 마친 기술과 서비스를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해외 도시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AI 기반 스마트도시 산업의 거점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 데이터 기반 AI 관제·안전 실증 인프라를 구축한다. 기술사업화(R&BD) 연계 프로그램과 사업화 바우처를 지원하고 GPU 기반 AI 모델 학습 환경도 제공한다. 한국인정기구(KOILAS) 연계 지원과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국내외 전시 참가 지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교통공사

첫 도시철도 생성형 AI 챗봇

부산교통공사가 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챗봇을 선보인다. 공사는 오는 15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 새 챗봇은 공사가 2022년부터 카카오톡 채널에서 운영해온 시나리오형 챗봇과 성격이 다르다. 기존 방식은 사전에 입력된 13개 유형의 질문에 맞춰 정해진 답변만 제공했지만, 이번 챗봇은 이용자가 입력한 문장을 분석해 의도를 파악한 뒤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성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전남 공예페스타' 개최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전남공예장작지원센터인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 '2026 전남 공예페스타'를 개최한다. 공예주간을 맞아 마련한 이번 행사는 지역 공예 작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축제로 진행된다. 행사 첫날인 19일에는 목공예와 천연염색을 주제로 한 심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공예품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작품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20일과 21일에는 쪽 염색을 비롯해 목공예와 유리공예, 가죽공예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나주=양수영 기자



권철현 UNIST 교수(왼쪽) 유니콘 레이싱팀이 로보레이서 자율주행 경진대회에서 1위에 올랐다. /UNIST

UNIST '유니콘 레이싱', 로보레이서 우승

상위 트랙 마스터컵서 기술력 입증 인지·경로계획·제어 알고리즘 탑재

울산과학기술원(UNIST) 자율주행 연구팀이 세계 최대 로봇 학술대회 부대 경진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UNIST는 기계공학과 권철현 교수팀 '유니콘 레이싱(UNICORN Racing)'이 ICRA 2026 공식 자율주행 경진대회 '로보레이서(RoboRacer)'에서 마스터컵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대회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렸으며, 12개국 이상에서 약 30개 팀이 참가했다.

로보레이서는 F1 차량의 10분의 1 크기 모형에 자체 개발한 인지·경로 계획·제어

알고리즘을 탑재해 실제 트랙에서 겨루는 대회다. 201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F1TENTH'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으며 현재 전 세계 대학들이 자율주행 연구·교육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부터 난이도에 따라 '클래식컵'과 '마스터컵'으로 나뉘었고, 유니콘 레이싱팀은 상위 트랙인 마스터컵에서 우승했다.

올해 트랙에는 경사로와 다리 구간이 새로 추가돼, 차체가 도약하거나 착지 충격을 받는 상황에서의 자세 제어가 관건이었다. 권 교수팀은 참가팀 가운데 유일하게 3차원 라이다(LiDAR)를 탑재, 주변 환경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전략을 택했다.

/울산=이도식 기자

군산, 청년농업인 영농 기반 마련 지원

내달 10일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
소득요건 충족 청년 농업인 모집

전북 군산시는 내달 10일까지 '올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업 분야 미래 인재 육성과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 기반이 부족한 청년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독립경영 경력 3년 이하이거나 창업 준비 중인 예비 농업인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최종 선발된 청년 농업인에게는 영농 기반 마련과 성장을 돕는 맞춤형 혜택이

주어진다.

주요 지원 내용은 ▲영농 경력에 따른 정착 지원금(최대 3년간 월 90만~110만원, 바우처 형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최대 5억원 한도, 연 1.5% 금리, 5년 거치 20년 상환) ▲농지은행 임차 사업 등 연계 지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농업e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삼기 군산시 농업정책과장은 "청년 농업인은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라며 "청년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미래 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전북)=조계철 기자 chonho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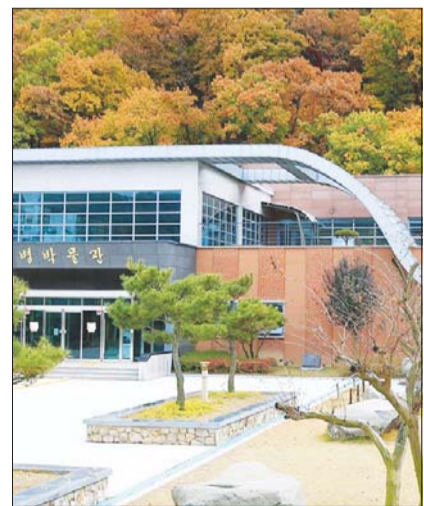
경남관광재단, 호국보훈 관광지 5곳 추천

의병·임진왜란·6·25 현장 소개
의령·고성·통영·거제·남해 선정

경남관광재단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경남의 대표 관광지 5곳을 소개했다. 의병 정신이 살아있는 유적지부터 임진왜란과 6·25전쟁의 흔적을 간직한 공간까지 다양한 역사 현장이 추천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추천지는 의령 의병박물관과 고성 당항포관광지, 통영 원문공원, 거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남해 6·25·월남전 참전유공자 흔적전시관이다. 의령 의병박물관은 임진왜란 당시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관재우 장군과 의병들의 활약을 조명하는 공간이다. 전시와 영상 콘텐츠 등을 통해 백성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켜낸 호국 정신을 살펴볼 수 있다.

고성 당항포관광지는 이순신 장군이 왜선을 격파하며 승전을 거둔 역사 현장이다. 송충사와 당항포해전관에서는 이



경남 의령군 의병박물관.

순신 장군의 전술과 거북선의 활약상을 다양한 체험 콘텐츠로 만날 수 있다.

통영 원문공원은 6·25전쟁 당시 해병대 최초의 단독 상륙작전이 이뤄진 장소다. 현재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충혼탑과 전적비가 당시 전투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광주, 문화예술 연결·확장 해법 찾는다

내달 11일 전일빌딩245서 개최
예술인·기획자·기관 관계자 참여

광주 지역 문화예술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업과 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문화예술 기획단체 아르플레닛은 예술인과 문화기획자,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광주아트살롱'을 열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연결과 확장 가능성을 모색한다.

문화예술 기획단체 아르플레닛은 오는 7월 11일 오후 2시 전일빌딩245 4층 중회의실에서 '광주아트살롱'을 개최한다. 행사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과 문화기획자, 문화공간 운영자, 문화예술 기관 관계자, 시민 등이 참여해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현실을 공유하고 발전 방

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광주 문화예술, 어떻게 연결하고 확장할 것인가다. 참가자들은 특강과 발제, 테이블 공론장,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계가 마주한 과제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강은 지역 문화플랫폼 운영 경험을 가진 김중언 팩터 대표가 진행한다. 이어 김경한 이야기브릿지 대표와 조은영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팀장, 김민철 부나비즈 대표, 임채빈 극단 밝은 밤 연출가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밤 연출가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문화기획과 지역 정책, 전통예술, 공연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고민과 협력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밀양시

하계 청년 아르바이트 모집

경남 밀양시는 지역 청년들에게 공공부문 실무 경험과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하계 청년 아르바이트 참여자 91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15일부터 24일까지다. 시 대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올해 준계 아르바이트 참여자는 제외된다. 선발은 29일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진행된다. 근무지는 희망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경쟁률이 높을 경우 추첨을 통해 배정된다.

/밀양(경남)=손병호 기자